

# 사회학의 시각에서 본 환경문제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태도

- 한국·대만·서구 3국의 비교 -

양 중 회  
(성균관대 교수)

### I. 머리말

지난 수세기 동안 일어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전례없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초래했는데, 이는 자연자원의 소모율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경문제는 사회의 일부집단의 노력이 나 일부정책의 개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고 방식, 생활양식의 변화와 사회의 근본원리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정복,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라는 서구의 사상에 뿌리를 둔 지속적인 자연착취의 결과라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사상에 바탕을 둔 자연소모적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추구, 과학기술 만능주의,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적인 생활양식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단지 기술적 혹은 자연과학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책적인 문제이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는 사회

의 지배적인 가치관 및 세계관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고에서는 환경문제의 배후에 있는 현대 공업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그에 대항하여 새로운 가치관으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주의적 가치관을 대비하고, 그 개념도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대만과 미국 등 서구 몇나라의 일반대중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가치 및 태도를 가지고 있나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자연, 환경, 사회에 대한 두가지 대립되는 신념 패러다임

#### 1. 현대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

Catton과 Dunlap(1980)은 근대 서구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다음 네가지로 요약한다. (W. R. Catton, Jr. & R. E. Dunlap, "A New Ecological Paradigm for Post-Exuberant Sociology" In special issue of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4).

① 사람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인간은 그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② 사람들은 그들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배울 수 있다.

③ 세계는 광대하며, 따라서 인간에게 무제한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으며, 고로 진보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이 세계관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장 우선정책, 과학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물리적 사회적 위험의 감수, 차별보상의 인정, 효율적인 결정의 강조, 주요 공급시장의 원칙 지지, 현세대에의 지향 등으로 나타난다.

### 3. 두가지 상반된 패러다임의 대비

<표-1>

두가지 상반된 패러다임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NEP)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 (DSP)
<p>I. 자연에 높은 가치 부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 그 자체를 사랑</li> <li>2. 인간과 자연의 조화</li> <li>3. 경제성장 대신 환경보호</li> </ol> <p>II. 다음에 대한 일반화된 동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종 (species)</li> <li>2. 다른 사람들</li> <li>3. 다른 세대</li> </ol> <p>III.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의깊은 계획과 행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과 기술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님</li> <li>2. 원자력을 더이상 발전시키지 않음</li> <li>3. 연성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이용</li> <li>4.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li> </ol> <p>IV. 성장에의 한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간은 자연과 그 자신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li> <li>2. 개방성과 참여</li> <li>3. 공공선의 강조</li> <li>4. 협력</li> <li>5. 후기 물질주의 (post-materialism)</li> <li>6. 단순한 생활양식</li> <li>7. 직업에 있어서 근로자 만족의 강조</li> </ol> <p>V. 새로운 정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적이고 참여적</li> <li>2.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정당간 논쟁</li> <li>3. 직접적 행동을 할 의사가 있음</li> <li>4. 예견과 계획의 강조</li> </ol>	<p>I. 자연에 낮은 가치 부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자연</li> <li>2. 인간의 자연지배</li> <li>3. 환경보호 대신 경제성장</li> </ol> <p>II. 가까이 있고 귀한 것만 동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간의 욕구를 위해 타종의 착취</li> <li>2. 타인에 무관심</li> <li>3. 현재의 세대에만 관심</li> </ol> <p>III.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과 기술은 인간에게 큰 혜택</li> <li>2. 원자력을 신속히 발전시킴</li> <li>3. 경성 테크놀로지의 강조</li> <li>4. 규제를 강조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 강조</li> </ol> <p>IV. 제한없는 성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간은 자연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지 않다.</li> <li>2. 위계서열과 효율</li> <li>3. 시장의 강조</li> <li>4. 경쟁</li> <li>5. 물질주의</li> <li>6. 복잡하고 방탕한 생활양식</li> <li>7. 경제적 필요를 위한 직업의 강조</li> </ol> <p>V. 옛날의 정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가에 의한 결정</li> <li>2. 경제운용에 관한 정당간 논쟁</li> <li>3. 직접적 행동의 반대</li> <li>4. 시장통제의 강조</li> </ol>

## 2.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환경주의 패러다임의 발전

(1) 근대에 들어와서 자연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미국에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연보존운동 (conservation movement)에서 시작했는데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운동이 일어났다.

(2) 자연보존운동은 1960년대 환경보호운동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각종오염과 이에 대한 여러 선구자들의 경종 때문이었다. (예 : Rachel Carson, *Silent Spring*. Cambridge Riverside Press, 1962)

(3)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하여 환경문제는 테크놀로지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회의 기본적인 변동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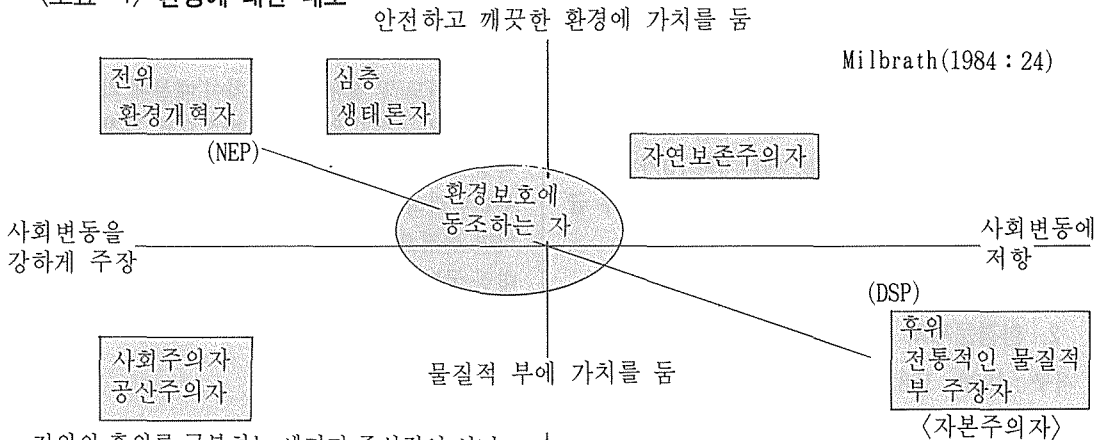
(4) 독일에서는 환경주의자들이 전통적인 정당구조 하에서는 그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녹색당(Green Party)을 결성하였다.

(5) 그러나 환경운동 내에도 분열이 있다.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은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을 공격하고, 사회의 기본적 변동을 시도하며,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

로서, 신환경주의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연보존주의자들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 성장에의 한계 등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물론 이 두가지 상반된 패러다임은 극단적인 특징을 강조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극단적 신념 사이에 위치한다. 다양한 집단들의 신념의 위치를 이 두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설정하려는 것이 도표1이다.

〈도표-1〉 환경에 대한 태도



전위와 후위를 구분하는 세가지 중심적인 신념

(1) 환경문제의 인지과 관심 : 환경문제의 인지과 사회가 환경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

(2) 사회의 기본적 변동대 기술발전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인가, 사회의 기본적 변동인가?

(3) 성장에의 한계 :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간의 우선순위.

### III. 한국, 대만 및 서구 3국의 비교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환하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 및 태도를 국가

간 비교한다. 우리나라에 관한 자료는 1990년에 환경처의 의뢰로 대륙연구소에서 실시한 사회조사보고서인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거하였고, 대만의 경우는 Hsin-Huang Michael Hsiao, “Changing Public Environmental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s” in *Taiwan 2000 : Balancing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teering Committee, Taiwan 2000 Study, 1989)*, 미국 및 서구의 자료는 Lester W. Milbrath, *Environmentalists : Vanguard for a New Society* (SUNY Press, 1984)에 의거 하였다.

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한국 : 1990

- (1) 2000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 전쟁위협(5.2%)                      • 인구팽창문제(17.9%)                      • 자원고갈문제(11.2%)
  - 환경오염문제(63.7%)                      • 기타(2.2%)
- (2) 현재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심각성
  - 매우 심각(15.6%)                      • 심각한 편(61.6%)                      • 그저 그렇다(19.8%)
  - 심각하지 않다(3.0%)

대만 : 1983, 1986

- (1) 대만의 환경오염 정도

	심각 + 매우 심각	5년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983	70.1%	50.8%
1986	88.0%	70.3%

서구 : 1980

(1) 환경문제의 긴급성(urgency) : 소음, 공기오염, 물오염, 과잉인구, 쓰레기, 유독폐기물, 원자폐기물, 자연경관 훼손, 자연자원고갈, 에너지의 10가지 문제 각각에 대해 7점척도(전혀 급하지 않다 1점, 매우 급하다 7점)로 측정하여 그 평균 점수를 산출.

미국 : 5.33    영국 : 5.83    독일 : 6.11

조사년도 및 질문내용의 차이 때문에 각국간 직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만의 예로 보아 현 추세대로 간다면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대한 국민의 인지,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환경문제의 해결책

서구 : 1980, 1982

- (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변동(1982)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의 기본적 변동				평균
	3(1)	2(2)	1(3)	0(4)	1(5)	2(6)	3(7)	計	
미국	12(%)	9	9	11	14	19	26	100	4.85
영국	8	11	6	9	11	17	37	99	5.04
독일	29	13	6	9	6	13	25	101	3.88

-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경제·정치 체제에 있어서의 변동(1980)

	환경문제 기본적 변동		상당한 완전한 새로운 체제		변동 필요, 실현 불가능		計
	없다	불필요	변동	완전히 새로운 체제	변동 필요,	실현 불가능	
미국	1(%)	10	65	16	8		100
영국	1	11	52	25	11		100
독일	2	16	59	9	13		99

- (3) 환경문제를 다루는 정부행위의 적절성(7점척도 : 가장 부적절 1점, 중립 4점 가장 적절 7점)

미국 : 2.95(1980), 3.46(1982)    영국 : 2.66, 2.83    독일 : 3.68, 3.23

한국 : 1990

- (1)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아주 열심히(2.4%)                      • 대체로 열심히(22.0%)                      • 그저 그렇다(30.7%)
- 대체로 형식적(35.6%)                      • 아주 형식적(9.3%)

대만 : 1983, 1986

(1) 환경문제를 다루는 정부노력(비용과 활동)의 적절성

	너무 많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너무 적다	모르겠다	計
1983	1.3	13.0	46.9	12.3	25.6	100.1
1986	0.8	13.3	41.5	22.4	22.0	100.0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체제의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에는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질문을 제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그와 같이 근본적인 사회적 변동에의 요구와 필요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짐

작할 수 있다.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는데, 여기서 고려한 국가의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노력을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나라에서나 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며, 또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성장에의 한계

서구 : 1980, 1982

(1) 공업사회의 성장에의 한계 : 다음 척도(강하게 동의 3점, 상당히 동의 2점, 약간 동의 1점, 중립 0점, 약간 비동의 -1점, 상당히 비동의 -2점)로 측정 한 평균점수.

미국 : 0.25(1980), 0.18(1982)

영국 : 0.87, 0.56 독일 : 1.81, 1.62

(2)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가?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				計	평균
	3(1)	2(2)	1(3)	0(4)	1(5)	2(6)	3(7)			
미국 1980	26%	18	18	19	8	5	6	100	2.99	
1982	21	21	17	20	9	7	5	100	3.17	
영국 1980	29	19	18	22	6	2	4	100	2.80	
1982	28	24	11	16	8	6	7	100	2.95	
독일 1980	38	13	9	18	6	5	11	100	2.99	
1982	31	13	11	13	8	12	12	100	3.38	

대만 : 1983, 1986

(1)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

	1983	1986
1.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해야한다	48.3%	41.4
2.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36.8	37.7
3. 결코 해서는 안된다	2.4	3.3
4. 모르겠다	12.5	17.6
計	100.0	100.0

한국 : 1990

(1) 아래의 견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

1. 환경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를 제한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케 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15.0%
  2.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의 주 요소인 자연자원과 에너지, 노동력을 잘 보전케 함으로써 경제성장 능력을 높일 수 있다. 73.6%
  3. 모르겠다. 11.4%
- 計 100.0%

(2)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둘만 선택	%	순위
1. 경제성장	20.6	5
2. 범죄로부터 보호	47.3	1
3. 환경오염 방지	41.5	2
4. 청소년을 입시문제에서 구해냄	19.4	6
5. 저 소득층에 생계지원	29.3	4
6. 교통 주택 등 도시문제 해결	41.2	3
7. 기타	0.6	

환경문제에 관해 대립되는 가치관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로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간의 관계로 나타난다. 서구인들의 경우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또 성장에의 한계가 있다는 데에도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와는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대만과 한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대만의 경우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강조가 서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직접 비교할 자료는 없으나, 환경오염방지를 경제성장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또 많은 응답자들이 환경보전이 경제성장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양자택일하라고 할 경우 대만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경제성장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 가운데 하나이지만,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목표가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IV. 맺는말

환경문제는 사회의 일부집단의 노력이나 일부정책의 개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의 변화와 사회의 근본원리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주의자들에 의해 새로운 환경

주의 패러다임(NEP)이라는 이름으로 주도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초에 이미 일반대중의 18%, 영국은 24%, 독일은 29%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 환경문제의 인지에 있어서는 선진국 못지않으나, 그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환경주의자들은 세가지 종류의 장단기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1) 화학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유독물질 같은 즉시적인 문제

(2) 공기나 물을 보호하고, 토지사용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 같은 중기적인 문제

(3)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근본적인 혁명을 자극하며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와 생활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문제.

(Milbrath, 1984:81)

우리도 중단기의 즉각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환하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근본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